

옹진군자원봉사센터, 희망나눔 밀반찬 전달 사업

소외계층 550세대 매월 2~4회 제공

주관철 기자

최종 기사입력 2024-02-19 14:33



인천시 옹진군자원봉사센터는 16일 영흥면을 시작으로 옹진군 7개면에서 '2024 희망나눔 밀반찬 전달'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.

'희망나눔 밀반찬 전달' 사업은 지역 내 봉사단체에서 만든 밀반찬을 소외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고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밀반찬을 전달받는 소외계층은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다.

옹진군자원봉사센터는 '2024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'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50세대에 매월 2~4회 씩 밑반찬을 전달할 계획이며 센터 소속 15개 봉사단체에서 식재료 구입부터 식단 구성, 조리 및 전달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.

홍득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장은 "2024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 사업을 통해 공동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취약계층의 돌봄 역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며 "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"고 밝혔다.

인천=주관철 기자 orca2424002@

프린트

취소